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11강, 요한과 비유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요한과 비유에 관한 신약성경 역사와 문학 강의 11강을 강의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별 복음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John을 매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하여 이 책의 독특한 점 중 일부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한 형태 중 하나가 비유라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포물선 문학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조금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학 장르나 문학 유형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 우리는 금요일까지 모든 복음서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럼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약성서의 일부를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묵상하면서 통찰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독자들을 불러내는 방식에 순종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복음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니,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을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아이콘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저자 또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왜 그런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뚜렷한 차이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추정하지만 요한복음의 네 번째 복음서와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처음 세 복음서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문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종종 요한복음을 네 복음서 중 더 영적인 복음, 또는 더 신학적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신학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더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사. John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둘러싼 더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Matthew, Mark 및 Luke에서 찾은 것만큼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신학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John을 읽을 때 매우 다른 내용을 읽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자료의 대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아주 간략하게 탐구하면서 요한복음이 왜 다른 세 복음서와 그토록 다를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른 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복음서도 엄격하게 익명입니다.

즉, 복음서 어디에서도 저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제 제목은 사랑하는 제자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복음서인데, 실제로 누가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관해 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통에서는 네 번째 복음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의 저자에 대해 쓴 초기 교부들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이름을 언급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존이 한 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로 요한(John the Elder)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정확히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도인 요한을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간주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 영어 번역에서는 John에게. 그러나 요한이 말한 그 제목은 복음서의 아주 초기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 첫 페이지에 그 제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아주 초기부터 이 복음서를 요한이 쓴 것으로 여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실제로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인 20장과 30절, 31절에서 요한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쓴 이유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20장 30절에서 시작하여 복음서 끝부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복음서 작가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 중에 내가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글쎄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선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예수가 참으로 메시야임을 확신시키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포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매우 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마도 요한이 쓴 목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믿음을 강화하여 예수가 실제로 자신이 말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제공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요한에게도 복음 전도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과 비기독교 유대인에 대한 변증과 복음 전도 노력에 자료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은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아마도 요한이 독자들을 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을 매우 빠르게 살펴보고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어떻게 독특하고 다른지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은 요한복음 1장과 처음 18절이다. 어떤 의미에서 처음 18절은 프롤로그를 제공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합쳐진 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이 그의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처음 18절은 이런 종류의 프롤로그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단어가 시작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어법은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크게 배척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 말씀도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버전인 1장 14절에서 그것은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이제 이 프롤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말씀으로 불리거나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말씀이나 로고스 뒤에 있는 개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나 로고스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마도 구약에서 나온 단어였음을 시사합니다.

말씀 로고스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리켰으나 다른 연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과 분명히 동일시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요, 담론이요, 이 말씀이 14절에서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된다. 이제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요점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가 지금은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합당하시거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한이 로고스나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이 서문의 맨 마지막 절인 1장 18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외에는 요한이 이르되 자기를 알리는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치 요한이 14절에서 하나님이시며, 로고스이시지만 이제 사람이 되신 이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온전히 드러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으나 이제 육신이 되신 것은 1장 14절이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 에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또 그 분이 하나님이시니 태초에는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14절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지금 성육신하신 이 말씀뿐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우리가 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하나님의 계시 자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게 완전히 드러내고 드러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워줍니다. 또한 처음 18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능한 반응이 이미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배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르되,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라 부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복음서에서 읽게 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도 프롤로그에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우리가 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분, 인간이 되시는 분으로 기능하실 것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시며, 믿음과 순종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핵심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내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구절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핵심 본문은 3장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다소 긴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이 구절을 인식합니다.

이곳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3장을 인식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에 바리새인과 대면하고 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입니다.

4장. 4장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그 당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여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 아마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그 곳을 피했다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서 저는 다음 섹션인 6장을 건너뛰고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 가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에 대한 다소 긴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시이자, 일종의 마지막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서 14장부터 17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다소 긴 담화 또는 부분입니다. 종종 다락방 담화라고 불리며,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이셨고, 그런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게. 마지막으로 21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20장과 30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이제 그곳이 복음을 끝내기에 적절한 곳이겠지만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복직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시나요? 그는 그에게 이것을 세 번이나 묻습니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피터는 세 번 모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왜 한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그를 세 번이나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베드로가 세 번 다 옳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일종의 베드로의 존재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상응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후, 이제 세 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21장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와 평행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나는 존재한다(I AM)'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I Am이라는 여러 진술을 하신 곳에서 I Am이라는 술어는 대개 일종의 은유입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이다, 미안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특정 이미지와 동일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미지가 구약성서에서 나왔으며 자주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측면에서 이러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술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특징은 이제 내가 목자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또는 나는 빛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I Am 진술입니다.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나는 문이다. 나는 참된 문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10장.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단지 요한복음의 본문 순서를 따를 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되실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John의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I Am 진술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구약성서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특징이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주장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I Am 진술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구절이 나오는 정확한 구절을 얻는 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이 여섯 가지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술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곱개 있는줄 알았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7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였고, 이스라엘도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주장하십니다. 나는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I Am 진술과 매우 다릅니다. 자, 우리가 물었을 때, 그가 물었을 때,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의 여러 본문과 자료들을 방금 살펴보았는데, 요한의 가르침에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습니까?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적어도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첫 번째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즉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명백하고 분명하게 식별합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강조. 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느님과 동일시하신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하던 도마가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심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 구절에 나오는 두 단어인 거하다(div)와 영광(Glorious)은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데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단어가

예수에게 적용됩니다. 마치 요한이 다시 예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자가 그 구절에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 예수의 신성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때로 요한이 좀 더 신학적인 복음, 영적인 복음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John은 그것에 주의를 끌고 강조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이 특히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하는 제목인 로고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말씀이었으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요한이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단어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세계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담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담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저자가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우리는 다양한 그리스-로마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스토아주의였습니다. 스토아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자연과 물리적 세계가 전부이며, 삶의 열쇠는 만족을 유지하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극단적인 감정과 반응에 민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족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의 일부, 즉 스토아적 사고의 일부는 물리적 세계가 로고에 의해 살아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존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스토아주의의 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충만한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요한은 유대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집에 있을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John의 특징입니다. 시놉시스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로고스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요한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요한이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가져오시고 제공하시는 것이 영생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용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문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현장에 나타나셨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이제 흥미롭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왕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반면,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영생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구약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생은 새 창조의 생명, 곧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 안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었고, 이제 예수께서는 독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 둘을 결합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영생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통치와 통치와 왕국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누리게 될 생명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흥미롭게도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뚜렷한 장소 중 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고별 담화,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에 성령을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추종자들과 계속 함께 임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추종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추종자들과 함께 계시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실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이 특히 14장부터 16장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강조점은 요한이 이러한 반대되는 점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복음 전체에 걸쳐 흐르는 이원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John이 일종의 종파적 그룹에 글을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은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자신을 매우 흑백 용어로 보는 그룹입니다. . 아마도 요한의 이원론은 요한복음에서 상황이 다소 반대이거나 매우 흑백이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 위와 아래 사이의 이원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요한이 위로부터 있는 것이나 아래로부터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특징지어지며,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은 빛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삶과 죽음은 명백히 반대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이원론, 즉 복음 전체에 걸쳐 흐르는 이러한 극명한 반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요한의 독자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자신의 적이나 반대자들과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일종의 종파적 환경에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이런 종류의 언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공관복음과 비교하여 요한복음이 다르거나 구별되는 점입니다. 강화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별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반영하기 위해 글을 썼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요한 서신인 요한 1 서, 2 서, 3 서를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요한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왜 그렇게 다른가요? 내 말은,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때로는 데자뷰(Deja vu)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세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 John에게 다가가면 마치 다른 것을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방식에 있는 어휘 중 일부도 요한에게 다가가면 갑자기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그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말은, 그는 그들을 몰랐나요, 아니면 존이 일종의 배신자인가요? 그는 스스로 떠날 것입니다. 존이 그토록 뚜렷하고 달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그것은 훨씬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연대를 서기 90년과 같은 1세기 말쯤으로 추정합니다. 즉,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아요.

어쩌면 훨씬 나중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매우 다른 상황, 매우 다른 청중, 일련의 상황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것을 쓰게 만든 이유입니다.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를 가정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는 다른 것을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공관복음 세 개를 알고 있었고 단지 그 세 개와는 매우 다른 것을 쓰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복음서, 심지어는 공관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매우 다른 글을 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이러한 제안과 함께 언어의 많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신약성서의 다양한 문학적 유형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내러티브와 서신, 묵시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매우 다른 내러티브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 중 하나는 1 세기에 다른 사람의 연설을 녹음할 때 그 사람의 정확한 표현을 보존하려는 시도나 욕구가 실제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세기 작가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일은 정확한 표현을 보존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말한 내용의 취지, 강조, 요점을 요약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말한 내용을 자신의 단어와 어휘로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마도 요한 자신의 문체, 자신의 어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하시지만,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독백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수의 끝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멈추시며, 요한은 어디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어

들고 논평하기 시작합니까?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그 이유는 요한이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체, 자신의 어휘,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자신만의 요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부분이 공관복음, 특히 그가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요한의 차이점을 자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신학적 사상과 주제를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Craig Blomberg의 다른 책을 추천합니다. 나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 공관복음에 관한 그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의 역사적 신뢰성이라는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그가 하려는 것은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공관복음의 차이점은 요한이 사실을 빠르고 느슨하게 다루었고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고 싶다면, 나는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의 요한복음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당신의 노트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한복음의 독특하고 독특한 강조점이나 본문과 부분이 무엇인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비유가 무엇인지 ,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제와 구성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은 챕터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히 여기 이 슬라이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철학은 도시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블록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도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장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구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주요 장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구절이 발견되는지, 정확한 장과 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이 장들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이 섹션이 어떤 장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로 특정 구절이 아닌 더 넓은 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특징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특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유를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온갖 상징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유와 우리가 비유를 읽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활용하시는 문학의 종류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비유에 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비유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유를 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는 랍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이 따랐을 일반적인 가르침 방법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나 그분이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물론이고 양이나 청지기나 청지기나 주인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비유까지도 식물, 겨자씨, 즉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랍비들이 자신들의 비유에서 사용했던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랍비들이 가르쳤던 비유의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별되는 부분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와 비유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처럼 매우 상세한 우화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비유 뒤에 숨은 영적인 우화적 의미를 찾기 위해 비유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글쎄,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두 번째 수준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세기경 초기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맞아 죽게 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레위 사람입니다.

마침내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의 상처를 싸매 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지불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말한 내용과 그가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약의 아담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어딘가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평화의 도시, 일종의 영적인

적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향하고 있는 여리고 성은 아담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이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때리고 죽은 듯이 내버려둔 도둑들은 천사들, 마귀, 그의 마귀들, 그의 천사들을 상징했습니다.

흥미로운. 그들이 그를 때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를 설득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이런 종류의 수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어 뒤에 숨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반쯤 죽은 채로 두었다는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창세기 1-3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성경, 즉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흥미 롭군요.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역겨워하고 만질 수 없고 참된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 어거스틴은 사마리아인을 자연스러운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는 현장에 영웅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은 그 기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그가 태운 당나귀, 어거스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모든 작은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14장,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고, 그의 성육신이 되셨다는 뜻인데, 이는 그가 인간의 육체, 인간의 본성,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관은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구타당한 사람을 데려간 여관은 교회를 가리킨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편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 여관 주인에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돈은 내세,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초기에 이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19세기까지 우리가 비유를 읽는 방식을 지배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세기 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비유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비유를 보고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내용과 영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모든 마지막 세부 사항.

그들은 이것을 했고,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도살된 송아지, 그의 발에 신은 신, 겉옷, 반지,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어떤 우화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세기까지 비유가 다루어진 방식이었습니다. Adolf Jülicher라는 독일 학자가 그것이 비유를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말한 내용은 어거스틴과 교부들과 교회사가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비유는 상세한 우화가 아니다.

비유는 단 하나의 요점, 단 하나의 요점만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우화처럼 읽고 모든 것이 우화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한 가지 주요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관한 거의 모든 책을 집어 들고 비유 부분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주요 요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의 주요 요점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자유주의 학자인 아돌프 율리허(Adolf Jülicher)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어거스틴과 다른 사람들이 비유에서 이 모든 우화적인 세부 사항을 찾기 위해 수세기 동안 거의 임의로 비유를 해석한 방식에 반응했습니다 .

그리고 그는, 아니, 아니, 아니, 비유는 오직 한 가지 주요 요점만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율리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일종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이 있어서 때로는 이 진자가 한쪽 극단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나타나기 시작하는 접근 방식은 다시 한 번 진자로 돌아가기 전에 통역사의 목표는 전달되는 하나의 주요 요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려고 하신 한 가지 주요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시 진자가 일종의 중재 위치를 찾기 위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가 실제로는 간략한 우화적 서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구의 이야기. 비유, 대부분의 비유는 다시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무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즉 실화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에 바탕을 둔 이야기들이지만,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전달하기 위해 일종의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우화이지만 성 어거스틴과 다른 사람들이 비유를 대했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우화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화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들뿐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교회 전통과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시작하면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니라 비유의 주요 인물, 주요 사건 및

인물의 우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돌아가서 마태복음, 특히 13장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중 더러는 딱딱한 땅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주워 모았느니라.

어떤 것들은 땅에 떨어지매 엉겅퀴가 자라서 막히더라.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비유를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 비유의 주요 부분인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씨를 먹는 새들을 취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화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분명히 세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내 탕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던 작은 아들 역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유가 세 가지 의미, 즉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질 것이라고 의심하며, 각 주요 등장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이 아버지와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부당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회개하여 자신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화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죄인을 분명히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고 질투하는 큰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실 때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람을 상징하거나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은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은 세리와 죄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처럼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기뻐하며 반응해야 할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의 궁극적인 반응은 개방적입니다. 비유는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비유를 읽어보면, 비유 속의 하인이나 돼지나 아들이 돼지에게 먹인 음식에 대한 우화적 의미가 없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죽이는 그의 손가락 반지, 즉 옷에는 우화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스토리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유의 방식입니다.

단지 이야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유에 색깔을 더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화, 우화적 의미를 얻는 것은 비유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의 영적 또는 우화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복음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복음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과 비유에 관한 신약성경 역사와 문학 강의 11강을 강의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